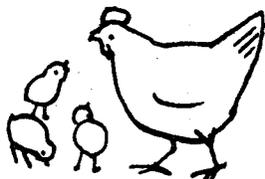


畜産業 發展과

配合飼料 問題를 생각한다



석 준 호

(퓨리나코리아 구매부장)

좋은 원료 없이는 좋은 제품 만들 수 없다

좋은 원료가 아니고서는 좋은 사료로 좋은 양축을 할 수가 없다고 하는 것이 요즘 들어 더 절실히 가고 있다.

그것은 배합사료 원료가 배합사료 업계 및 양축업계에 미치는 영양이 그만큼 크기 때문이다.

배합사료 공업은 서로 다른 원료를 특정한 공정을 통하여 성질이 원료와는 전혀 다른 어떤 제삼의 제품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원료 자체가 지니고 있는 영양소를 그대로 두고 배합하는 기술이므로 원료의 양부, 가격의 고저 및 원료의 사용량이 제품의 품질과 가격에 그대로 나타나게 된다.

그렇기 때문에 원료의 품질이 나쁘면 제 아무리 기술이 좋아도 좋은 제품은 나오지 않게 된다.

배합사료 원료에 대하여는 기초적으로 염두에 두어야 할 몇가지 사항이 있다

요즘 강피류 대책이 시급하고 또 탈지강이 품귀라 하는 말들이 자주 오간다. 그러

나 배합사료를 만드는 전체 원료를 대상으로 볼 때에는 어디까지나 상대적으로 한 말이지 말처럼 그렇게 심각한 것은 아니다.

필자의 경험으로는 배합사료 원료로 사용되고 있는 원료의 종류는 비교적 큰 부피로써 영양소를 지니고 있는 일반원료가 약 30가지, 부피는 작지만 특정 영양소가 많이 들어 있는 미량원료 30여가지, 도합 60여종의 원료가 쓰여지고 있다. 그러나 한 제품을 배합하기 위하여는 이들 원료를 다 쓰는 것은 아니고 이들 원료는 어느 원료이던 각축종별로 가축이 자라고 생산하는 데 필요한 영양물질을 부분적으로 또는 일반적으로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다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때 그때의 각 원료의 수급사정과 가격변동 및 품질의 정도에 따라 취사 선택을 하게 된다. 이런 것을 염두에 두고 우리가 꼭 생각하여야 할 것은,

첫째, 이들 원료의 시장사정이 늘 움직이고 있어서 원료의 취사선택 사용비율도 따라서 움직여주지 않으면 일정한 수준의 품질과 좋은 가격을 유지할 수가 없다는 점이다.

둘째는 한 가축이 특정 생존 기간동안에 요구되는 영양물질의 종류와 물량은 연구가 거듭되는데 따라 늘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셋째는 우리가 오늘 알고 있는 한 원료의

영양가치는 많은 실험과 연구결과에 따라 그 가치평가가 달라지고 있다는 점이다.

이상 세가지 사항 중 둘째, 셋째 사항은 상당한 기간을 두고 완만한 변동을 하지만 첫째 사항인 원료시장 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적절한 적응력이 있어야 한다.

금년 봄의 탈지강시세가 톤당 7만원 선에서 여름에는 12만원 선으로 오르고 물량도 별로 없는 사정에서 12만원 짜리 탈지강을 꼭 써야 하느냐하는 것은 한 경영단위가 처한 타원료와의 대체관계가 영양평가 및 배합기법에 따라 결정되고 탈지강 더 나아가 강피류가 전혀 없다해서 제품생산을 못하라는 법은 없다.

이와같이 우리가 배합사로 원료를 생각할 때에는 이상 세가지 영역을 늘 염두에 두는 것이 좋겠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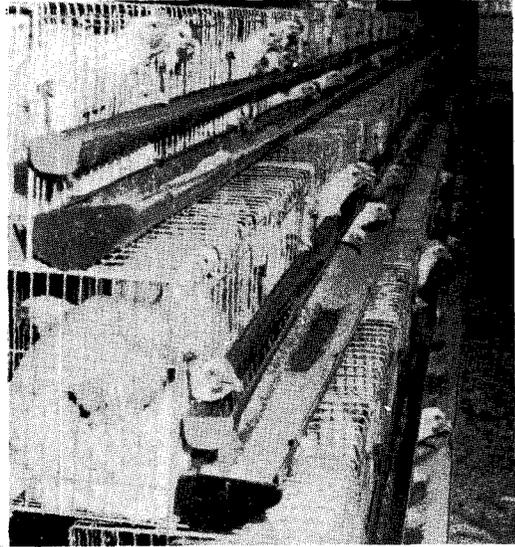
어차피 늘게 마련인 축산물의 수요

우리나라의 축산물 잠재 수요는 어차피 지금보다 늘게 마련이다.

인구가 증가로 먹는 식구가 늘어서 그렇고, 사람이 자라고, 아이를 낳고 건강을 유지하는데 꼭 먹어야 할 영양물질이 축산물 중에 많이 들어 있어 어느 정도까지는 먹어야 하고, 우리네가 먹는 식생활 수준은 아직도 우리가 타고 난 재질을 키우는데 필요한 수준까지는 못 미치고 있어 여건만 맞으면 곧바로 이 잠재수요가 실수요로 이어질 수가 있기 때문이다.

축산물 공급능력의 취약성

축산물의 수요 증가를 이렇게 필연적이고 또 어떤 면에선 당연한 것으로 보면 그에 대



한 공급능력이 어떤가가 문제인데 사료자원이 거의 없는 우리의 실정으로는 사실상 공급능력이 거의 없다고 보는 것이 옳을 것 같다.

국제무역이 없고 농가인구가 전체 인구의 70% 이상을 차지하던 때에는 농가 부산물을 이용한 한두 마리의 부업 또는 겸업형태의 축산을 통한 축산물 공급으로 큰 문제가 없었지만 70% 이상이 농의 사업 인구인데다 한 사람이 먹는 축산물의 양도 엄청나게 늘어난 지금은 전업 또는 기업 경영 형태의 양축규모가 아니고서는 수요를 따라 갈 수가 없고 국내의 사료자원만으로는 이를 감당할 수가 없게 됐다.

금년의 경우 우리가 외국에서 들여와야 할 사료원료의 물량은 약 290만톤으로 잡고 있는데 이는 우리나라의 1년간 미곡 생산량의 절반되는 물량이다. 그런데다 이 원료의 대부분을 한나라에서 한창구를 통해 몽땅 수입하여 들여 오기 때문에 그 나라에 대한 우리의 축산물 공급 의존도는 약 80% 이상이나 되고 있다.

이렇게 사료원료의 대부분을 외국에서 들여다 먹이는 국내 양축에 의한 축산물 공급

만으로는 부족하여 상당량의 산 송아지와 도살처리한 쇠고기를 들여오지 않고는 수요에 대처할 수가 없고,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나라 소의 씨가 마르게 되고 만다는 것이 아닌가?

이러한 형편에서는 어떤 이유에서건 그나라에서 들어오는 원료가 몇달만 끊어진다고 가정한다면 우리의 국내 축산물 공급능력은 하루 아침에 허물어지게 되어 있다. 물론 지난 십여년간 커다란 무리없이 배합사료 원료가 공급되었고 앞으로 십년간도 그럴 것으로 믿지만 먼 앞을 내다 보아 사료원료의 공급문제를 어떻게 다루어 가야 할 것이냐 하는 것은 우리 모두가 허심탐회하게 의견을 모으고 으뜸되는 생각을 추려 틀을 잡아나아가야 할 때라고 본다.



쇠고기 만톤 수입은 국내사료 수요감퇴 14만톤과 맞먹어

여기까지 생각을 하고 보면 아무래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앞으로 외국에서 축산관련 산업의 최종 제품이라 할 수 있는 축산물을 얼마나 들여 올 것이고 또 들여와야 하느냐 하는 대목을 지나쳐 버릴 수 없다 왜냐하면 축산물의 도입물량이 사료수요에 커다란 영

양을 주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쇠고기 만톤을 들여온다고 가정하면 비육우의 경우 1kg 증체에 대략 7kg의 사료가 요구되고 외국산 소의 수입육의 도체율을 50%로 보면 쇠고기 만톤 수입은 국내 사료감소 십사만톤과 맞먹는 결과가 되고 금년 쇠고기 예상 수입량을 2만톤으로 보면 배합사료 월간 생산량과 같은 28만톤의 사료수요의 감소 결과를 가져올 것이다.

앞으로의 축산물 공급을 어떻게 이끌어 갈 것인가? 내국산 축산물과 외국산 축산물과 공급의 비율을 어떻게 잡아 갈 것인가? 우리의 축산물 소비수준을 어떻게 설정하고 소비대중을 이끌어 갈 것이냐 하는 것은 두고 두고 논의가 될 것이겠지만 나라일을 맡으신 분들이 전체 상황을 보아 결정할 일이라 생각한다.

다행히 요즘 들어서 이 문제는 국내 양축업자의 국내 축산물 공급능력을 약화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종류와 물량 및 가격이 결정되어야 한다는 의견 쪽으로 모아지기 때문에 그렇게 믿고 사료원료의 공급을 어떻게 다룰 것이냐 하는데 대한 가장 기본적인 바탕만 언급한다.

첫째, 우리의 주어진 여건을 다시 생각해야 한다

사료자원의 국내 여건이 어떤 것이냐 하는 것을 다시 생각하여야 한다.

한때 우리는 초지를 개발해야한다고 했었다. 지금도 그 시책은 변함이 없고 그럴 법도 하지만 이에대한 경제성 여부에 대한 타당성 조사를 다시 검토해야 한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국토의 여건과 기후조건이 초지를 만들기에는 적합치 않다는 점에서이고 또 하나는 사람이 먹는 양곡의 절대 물량이 모자라는 우리형편으로는 될 수 있는 대로 곡물 재배나 사람이 직접 먹는 식물 쪽으로 국토를 할당

해 주어야 전체 나라살림에 보탬이 되리란 점 때문이다.

또 다른 예로는 농업부산물의 사료 이용에 대해서도 사업과 연관시켜 어느정도까지 경제성 있는 활용 방안이 있는가를 좀더 실용적이고 신축성 있게 다루어 가야한다.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사료를 자급할 충분한 여지를 지니고 있어 이 방면의 연구 개선이 계속되어야 할 것이다.

이런식으로 우리의 사료자원의 점검과 개발을 지속성있게 추구해 가야 한다.

둘째, 도입사료 원료는 보다 긴 안목으로 다루어야 한다

유리한 쪽만 골라 십여년 사다 보니 한 나라에서 한품목의 도입량이 전체 도입량의 거의 전부가 돼버렸다.

품질이나 가격, 대금지급조건이 유리한 쪽을 택하다 보니 그렇게 된 것이다. 앞으로도 이 범주에서 크게 벗어나지는 못하겠지만 그러나 10년 후 또는 20년 후의 일을 생각해서 일단 어떻게 가야할까 방향만이라도 정하고 그런 쪽으로 점차 힘써 나가도록 하여야겠다.

마지막으로, 배합사료 원료에 대한 우리나라 행정, 제도, 법규는 계속해서 고쳐 나가야 한다

이 분야에 대해선 금년들어 크게 개선되어 가고 있다.

옥수수를 제외한 전품목이 실수요자 또는 실수요자 단체가 원하면 언제든지 들여 올수 있도록 문호가 개방되었다. 그리고 앞으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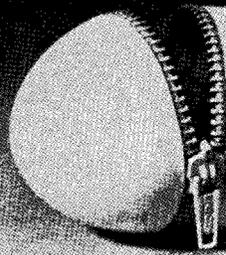
수입원료의 종류의 다양화

공급제도의 재정비

공급가격의 현실화 등의 조치가

이루어지리라 예상 되므로 다음 기회로 미루고 결론 삼아 우리 모두가 좀더 큰 안목과 높은 자리에 서서 협력해야 할 때라 믿는다.

The simple solution ...



適者로 生存하는 길 ?

부화율 5% 향상
약추율 2% 개선
노동력 70% 절감
전 력 50% 절감
무사고 雜 출하

Jamesway - 105 부화기

(105,840 란입)는 거뜬히 해냅니다



부화를 알고 부화기를 공급하는

과학축산시스템

서울 용산구 한강로 3가 40-152

전화 : 792-7212 · 7887